



임실군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발벗고 나선다.

임실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4개 중점사업 4년간 155억원 투입 지역농업 6차 산업화 탈바꿈

임실군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발벗고 나선다. 군은 지역농산물을 가공부터 체험관광까지 연계하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중점사업에 4년간 1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4개 중점사업은 임실N양념식품육성사업과 임실N과수융복합화사업, 임실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옷발효식품가치창조사업 등이다. 군은 임실N치즈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토대로 지역대표 농업을 체험과 관광이 함께하는 6차 산업화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차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1차 생산과 3차 유통산업, 체험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돈이 도는 지역경제를 구축한다는 것. 먼저 '임실N양념식품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임실양념 가공센터와 김치체험장을 건립한다. 이미 지난 2015년 추진된 이 사업은

간편식품 트렌드에 맞게 텃밭 양념채소를 융복합한 양념식품을 개발, 생산 중이다. 건립될 김치체험장은 계절별로 다양한 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임실양념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실N과수융복합화사업'은 복숭아를 중심으로 사과와 배 등 과수 작목을 융복합하는 것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1차 산업인 과수농업에 과수원체험, 복사꽃 축제, 임실N나물전지사업을 연계한 과수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영경귀와 독활, 옷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화를 위한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도 한창이다. 특히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을 통해 총 96억원 투입해

국내 최대 옷나무 재배단지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경귀와 독활, 옷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영경귀 공인 조성과 영경귀 건강식품 만들기 체험, 옷칠 체험, 옷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전개한다. 군은 이들 농업지원을 다양한 체험 상품으로 개발해 치즈마을 및 치즈테마파크, 119안전체험센터 등과 연계한 향토자원의 체험관광상품화를 위한 6차산업 패키지를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심 민 군수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수입농산물 개방 확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농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6차 산업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돈이 도는 임실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강천산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집중개발하고 있는 동계 섬진강변 용골산에 올해 자생식물원이 완공돼 500만 관광객 유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 용골산 자생식물원 완공

군, 원추리·나리·할미꽃 등 자생 초화류 심어

순창군이 강천산과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집중개발하고 있는 동계 섬진강변 용골산에 올해 자생식물원이 완공돼 500만 관광객 유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15억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는 자생식물원을 올해 안에 완공한다고 밝혔다. 자생식물원은 동계면 어치리 용골산 일원 3.0ha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 고유한 향토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체험과정 및 문화공간조성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미 사업 첫해인 2015년도에는 원추리, 나리, 할미꽃 등 자생 초

화류 39종 19만 7천본을 식재해 자생식물원의 모습을 갖췄다. 또 지난해에는 관광객의 접근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원추리 군락지 3개소를 집중 개발했다. 올해는 배롱나무 등 관목류를 식재하고 꽃무릇, 상사화 등이 피는 숲속 탐방로를 설치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힐링 쉼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생식물원은 용골산 치유의 숲, 용골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등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장군목 일원을 국내 최고의 숲 생태 관광지로 만든

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용골산 일원 치유의 숲은 올해부터는 야생화가 만개해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강천산과 함께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새로운 관광코스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6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자생식물원이 올해 상반기 인에는 완료 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장군목의 특이한 지질경관과 용골산 숲 체험이 함께 어울려 관광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인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출산율 높이기 나서

이환주 시장, 산모에 축하 전화

지난해 남다른 출산지원 시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남원시가 올해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다. 남원시는 먼저, 이환주 시장이 산모에게 축하 전화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장이 전하는 신생아 탄생 축하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신생아 탄생 축하전화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출산가정에 전화하여 남원시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고, 출산가정의 고민사항 등을 청취·해결 하여 아기 키우기 좋은 일등 남원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또, 기존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되는 한방치료를 통한 난임해소사업, 첫째아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셋째이상 다자녀 출산 산모에게 지원되는 산후조리금 지원사업, 예비부부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육아교실 등 10

여 가지 사업 외에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90%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신문사와 연계하여 '신생아 탄생 축하 사진 신문게재', '신문에 난 아가 사진 액자제작'과 더불어 '시장이 전하는 신생아 탄생 축하전화'는 출산가정에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환주 시장은 "시장이 발로 뛰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지원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20-7941)으로 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상반기 정기인사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3일 3층 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신고식 후,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계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각자 맡은 업무에 정통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순창경찰이 되고 더불어 모든 업무추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며 민원인과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신속·정절, 공정하게 함으로 대해 청렴한 경찰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사소한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행여 업무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며 의무위반 발생요인은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한목소리를 내었다. 신일섭 서장은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직원들은 빠른 업무 파악으로 해당부서에 적응하고 책임 있게 각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과 함께 "직업 간 화합하고 단결해 순창경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농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전했다. 올해는 190동(농협자금, 용자지원)을 추진하며 2년 연속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산도는 신속 최대 2억원, 증축 최대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용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지원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내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56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읍,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순창읍(읍장 설계훈)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순창읍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읍 주요도로에 대해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전날에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읍사무소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소를 실시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고향 이미지를 만들어줄 계획이다. 또한,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

간동안 쓰레기 방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실 및 기동수거반을 편성·운영하고, 설 당일 28일과 다음날을 제외하고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쓰레기를 수거할 방침이다. 환경미화계장은 "설 당일과 다음날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니 배출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금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클린순창 만들기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간담회

임실군은 지난 21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지도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도교사, 학부모, 실무자의 원활한 교류와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도교사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아카데미 사업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인성개발, 학습지원 등의 문

제정과 개선방향 마련을 비롯해 성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편견을 버리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했다. 한편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소년수련원(☎40-0388)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신덕면 생활개선회, 경로당 국수기탁

신덕면 생활개선회(회장 홍명자)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국수 17박스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원 30여명은 그동안 공병 및 폐비닐을 수거해 모은 성금으로 동절기에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홍명자 회장은 "희망찬 2017년을 나눔과 사랑으로 시작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개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기 면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의계증을 위한 사랑의 전도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